



# 남성고등학교 월간 대입입시정보

가슴엔 비전을  
행동엔 품격을  
세상엔 사랑을

(063)844-3813(교무실) / (063)859-9186(진학실)  
(063)858-3908(Fax)

2017년 1월 20일(금)

제2017-1월호

## 교육과정 일체화, 학종 준비의 첫걸음!



▲ 충북 세명고 동아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대동여지도 따라 문학·역사·지리 여행'을 실시했다.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 ▶ 오해는 풀어야 하지 않은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이제는 교육부도 연수에 강화 명으로 사용할 정도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그늘도 깊은 법이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하나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하면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한가?'이고 또 하나는 '평가와 기록을 일체화하다 보니 오히려 교육과정, 수업이 경직되지 않나?'라는 것이다.

첫 번째 물음의 답은 '잘 모르겠다.'이다. 다만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거기에는 강하게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평가요소로 삼고 있는 것은 주로 '학업역량, 학업태도, 개인적 소양'이고 이를 찾아낼 수 있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이다.





▲ 김덕년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이 고교 재학 기간 중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살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34시간(50분 수업 기준) 정도를 이수한다. 34시간 중 교과 수업이 30시간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4시간이다. 30시간 정도의 교과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학업역량이 좌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학교에서는 정규교과를 손대지 못하고 자꾸만 방과후 학습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여러 활동을 더하려고 한다.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학교는 대체로 방과 후에 더 바쁜 모습을 보인다.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활동하고, 정규 수업 시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대신 방과 후 시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통해 삶을 더 깊게, 넓게 준비해야 한다.

#### ▶ 교육과정 일체화는 개별 교육활동을 한 줄로 연결하는 것

두 번째 질문을 들으면서 참 답답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교사동아리는 일체화의 개념을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교과 교육과정으로 학생중심수업을 실천하고, 수업 중 학생의 활동을 관찰·평가한 후, 성장 중심으로 학생부에 누가 기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기록이 교육활동의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경직화라고 한다면 그동안 별개로 이루어진 수업과 평가 활동 습관 탓이 크다. 게다가 학생부기록도 평소 활동을 누가 기록하기보다는 기록을 억지로 수업과 연결하여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는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하는 교육활동은 수업이고, 평가이며 기록이다. 이를 담아내는 틀이 교육과정이다. 일체화는 이러한 개별의 교육활동을 한 줄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노력하여 다양한 수업의 기법이 도입됐고, 평가의 객관성도 높아졌다. 더구나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록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각각의 활동을 통해 학교는 분명 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교과교육과정을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나 수업을 학생중심으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수업 중에 학생의 활동을 관찰, 평가해야 가능한 과정중심평가를 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활동 전반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미 하고 있던 것인데 새삼스럽게 왜 '일체화'를 말 하나고 반문할 만하다.

▶문제는 이 모든 활동이 ‘따로 국밥’이었다는 사실이다.

교육과정이나 수업, 평가와 기록이 모두 겹돌아 아직도 교사들에게는 ‘일’로 다가간다. 학기 초에는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문건으로 만든다. 일부 교사들은 교육과정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 그냥 한 해 교과서 진도 나갈 생각에 골몰하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문제 풀이를 할 계획을 세운다. 아예 시중의 문제집 가운데 하나를 정해 그것으로 진도를 나간다. EBS 문제집도 시중 문제집 중 하나이다. 아무리 수능과 연계된다고 하지만 문제집은 문제집일 뿐이다.

이러니 평가는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교육활동이 된다. 수업 시간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집을 열심히 푼 학생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업과 평가는 별개가 된다. 문제집의 문제를 살짝 바꾸어 출제하면 되는데 굳이 서술형, 논술형 또는 수행평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선다형으로만 출제하면 컴퓨터가 모두 채점하고 학생들의 이의제기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하지만 학생 활동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이 상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해야 하니 또 고민이다. 수업 시간에는 문제풀이만 했고, 평가는 컴퓨터가 했다.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야 그래도 기억 속에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에 대한 기억은 수업 시간에 얹드려 자던 모습 밖에 없다. 쓸 말이 없다. 기록이 왜 필요하지 모르겠다. 학교생활기록부도 잡무가 된다.

이렇게 쓰다 보니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이다. 젊은 시절 내 모습이 겹친다. 그 시절에는 EBS 강사가 최고의 교사였다. 그렇게 흥내를 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EBS강의를 틀어주고 교사들은 보충설명만 하면 됐다. ‘참 나쁜 교사’였다. 나는 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아이들이 내 영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니 관계가 온전할 리가 없었다.

그동안 교육현장은 동시에 일어나야 할 교육활동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제풀이식 수업도 그렇지만 오직 변별을 위한 평가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다.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한 평가는 맹목적인 암기식 공부 방법을 낳았고, 우리 아이들을 그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게만 만들기도 했다. 생각이 사라졌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이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이기 이전에 ‘관계 맺는 자’이다.

아이들과 ‘관계 맺기’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단순히 관계만 맺으면 끝나는 직업이 아니다. 관계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내는 ‘성장 이끔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학입시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학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고민성 선생님(저현고)은 수업에서 분명하게 일체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고 선생님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모형을 설계한다. 평가는 수업시간 중에 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록한다. 분절적인 교육활동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이다. 구슬을 실에 꿰는 것이다.





▶ 일체화는 교실에서 새로운 ‘일’을 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해왔던 ‘일’을 실에 꿰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스펙(spec)을 주로 말했다. 이제 스토리(story)를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삶을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다. 아이들의 삶을 디자인하되 아이들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교육활동은 ‘플롯(plot)’으로 구성돼야 한다.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비록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업을 디자인 할 때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스펙(spec)이란 ‘specification’을 줄여서 쓰는 말로 1. 명세 2. 사양 3. 규격 4. 설명서 5. 기준을 의미하나, 보편적으로 구직자 사이에서는 학력, 학점, 자격증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쓰인다. 스토리(story)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반면 교사들의 수업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을 디자인하는 방식은 하나의 플롯(plot), 즉 인과 관계에 따라 필연성 있게 엮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심하게 배려되어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일체화로 학교문화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에서는 학교 리더와 교사들 간의 상호 나눔이 필요하고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정해진 연수 시간이 아니더라도 의자만 돌리면 교사들끼리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평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학교 간 교류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한다. 지역학교가 서로 만나는 날을 정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에 대한 사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처럼 ‘역량구축의 날(친구의 날)’을 만들어 지역의 모든 학교가 모여 서로의 교육활동을 교류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청에서는 전문코디네이터를 확보해 학교와 교사들을 도와야 한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포함한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경험이 많은 이를 확보하고 그들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을 제안하기는 쉽다. 실행하기는 어렵다.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기는 쉽다. 그리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화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더욱 더 어렵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는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학교의 문화이다. 문화로 정착이 되고 일상이 돼야 할 일이다.

##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입학사정관·입시전문가가 밝혔다 고교생 학생부 관리·보완, 이것만 기억하라!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더욱 확대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전체 모집인원의 23.6%에 달할 정도.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20.3%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는 상황.

하지만 학생부에 채워야 할 항목은 무려 10개에 달하다보니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한 고교생이 많다.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입시전문가들은 10개에 달하는 학생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 세 개라고 입을 모은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이 그것. 이들 세 가지 항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학생부의 '질'이 좌우된다는 것. 상위권 대학 진입을 돕는 '탄탄한' 학생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학생부를 관리하고 보완해나가야 할까?

### ○ 학업에 대한 노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되도록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학생부 항목은 무엇일까? 바로 내신 성적과 연관된 '교과학습



발달상황’ 항목이다. 강경진 서강대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10가지 항목 중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를 통해 학생의 학업 역량과 전공적합성, 학교생활 성실도 등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내신 교과목의 성적과 함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록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등 학생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담긴다.

내신 성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만을 뽑겠다는 것은 아니다. 강경진 입학사정관은 “내신 등급 상에 적힌 숫자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정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학생부에 드러난다면 그것이 몇 등급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 영어에서 5등급을 받은 학생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영어 담당 교사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해당 학생이 2학년 때 영어에서 2등급을 받았다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여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고 기록될 수 있다. 이 기록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따라서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할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김명찬 종로학원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한 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해주는 것이 정석이지만 실제 고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면서 “따라서 풍부한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교과 활동을 어떻게 공부했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학생이 자발적으로 교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수상경력, 상 받지 못해도 준비 과정은 교사에게 알려야

수상경력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 김일현 숙명여대 입학팀장은 “수상경력을 통해 학업 성취능력을 평가한다”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힌 내용과 수상경력을 비교해서 검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회 과목의 내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사회과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을 경우, 수상경력을 확인해보는 것. 이때 수상경력에 ‘교내 사회문화 경시대회 금상’과 ‘인문사회 과학퀴즈대회 금상’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은 다소 떨어지지만 사회과학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상경력 항목에 기록되는 상은 학교별로 사전 등록이 된 교내상만 입력할 수 있으므로 학기 초에 학교에서 어떤 교내대회가 열리는지 일정을 꼼꼼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화학과 생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열리는 ‘화학경시대회’ ‘생물경시대회’ ‘R&E 연구성과발표대회’ 등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

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했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담임교사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오재성 목동미래타임 입시연구센터장은 “교내대회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와 토론한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고스란히 기록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내가 성장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3학년 수시모집 때 자기소개서의 훌륭한 소재가 된다”면서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대회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을 교사와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진로와 직결되는 ‘통일성’ 갖춰라”

학생부 전체 항목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가 가장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항목은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상황’ 항목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 총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활동이 기록된다.

이 네 가지 영역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박정선 연세대 입학사정관실장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을 통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다”면서 “무턱대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보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방향성 있는 활동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개 영역에 대한 통일성. 그 시작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입시전문가들은 ‘진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그것이 봉사, 동아리, 진로활동들로 연결되면 짜임새 있는 학생부를 완성할 수 있다”면서 “이런 활동들은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1학년 때 생명과학동아리에 가입해 다양한 실험과 토론을 해보는 것. 이후 초등학교에 방문해 초등생에게 생명과학 실험을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축제가 열려서 생명과학 실험을 하는 부스를 운영한다면 자율 활동에도 기록이 된다.

▶에듀동아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mailto:leews111@donga.com)



##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대입에서 세 번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 방식 변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17학년도부터 새롭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이 적용된다. 개선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서활동상황'. 기존에는 책을 읽게 된 계기, 인상 깊었던 부분, 관련된 활동 등이 독서활동상황에 모두 기재됐지만 이제는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할 수 있다.

학생부에 '독서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독후활동을 소홀히 해도 될까? 절대 아니다. 면접에서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내 생각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고, 독후활동을 활용해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을 채우며 학생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라지는 독서활동상황.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교생은 앞으로 독서활동을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학생부와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

### ○ 독서 진정성 면접에서 확인... 나만의 독서노트 만들 것

학생부에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된다면, 독서의 진정성은 '면접'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김일현 숙명여대 입학관계자는 "독서활동과 관련된 것은 면접 때 많이 확인한다"면서 "학생부에 적힌 독서의 양, 책의 제목만으로 단순히 그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면접을 준비할 때 과거에는 학생부를 훑어보면서 ‘당시에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등을 떠올리며 준비했다면 이제는 학생부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독서노트’를 만들어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오재성 목동미래타임 입시연구센터장은 “독서노트를 적을 때에는 △책을 읽게 된 계기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읽고 난 뒤 생각의 변화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면서 “왜 읽었는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후 결과는 어땠는지를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면, 면접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독서, 창체에도 기록될 수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이것에 영향을 받아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으로 이어진다면 그 내용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기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활성산소’와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를 실험동아리의 연구주제로 삼았던 것을 선생님에게 알린다면 동아리 활동란에 ‘책을 보고 지적호기심이 생겨 동아리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는 식으로 기재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독서활동을 다른 활동과 연결시키면 자신이 그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책을 읽고 난 후 비교과 활동으로 연결해 증명한다면 자신만의 차별화된 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 교과목과 연결고리 만들어라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책을 통해 그 지식을 습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학생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를 공부하다가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면 선생님을 찾아가 이와 관련된 책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혹은 수학교과에서 모르는 개념이 있어서 전공책을 찾아본 뒤 그와 관련된 것을 선생님에게 물을 수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교과목과 연관된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이 잡힌 학생들은 책을 읽은 뒤 생긴 궁금증을 담당 교사를 찾아가 질문한다”면서 “책에 대해 교사와 토론한 과정은 고스란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돼 자신만의 학습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듀동아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mailto:leews111@donga.com)



## 고교생 비교과 활동, ‘인문학’ 담아내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제1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통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매 학기 국어 시간에 책을 최소 한 권 이상 읽어야 한다. 고교 선택과목에는 연극이 신설된다.

신미경 서울 배화여고 3학년 담임교사는 “교육부가 인문학을 강조하는 만큼,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인문학적 소양을 깊이 있게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실 교육부와 대학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융합형 인재상’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을 할 때 인문학을 녹여내려는 시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

수시 전형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비교과 활동의 방향을 수정해 인문학적 소양을 녹여내야 한다. 인문학과 비교과활동,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 ○ 독서, 인문학적 소양 높이는 수단으로!

수시모집 전형으로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대부분의 학생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끄는 경우가 많은 상황. 인문학과 비교과 활동을 연결하기 가장 좋은 수단도 역시 동아리 활동이다.

인문학과 관련된 동아리 가운데 자소서에 기입하기 좋은 것은 독서동아리. 대입 학생부 독서활동상황 란에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입할 수 있게 돼 자신이 책을 읽고 느낀 점과 독후활동 등을 어필하기가 쉽지 않아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동아리 활동.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제시하고, 독후활동을 통해 자신이 얻은 지식을 어떻게, 얼마나 확장했는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방학 때부터 활동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대학과 학과를 설정한 뒤 그에 맞게 독서동아리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경제학과 관련된 도서를 읽고 그와 관련된 동아리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마이클 샌델이 저술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도서를 읽은 뒤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경제적 효율성과 도덕적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회를 갖는 것. 단순히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읽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지식과 소견에 깊이를 더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연극동아리에서 셰익스피어 작품 재구성하라

연극동아리 활동도 인문학적 소양을 드러내기에 좋다. 연극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인문학적 요소가 응축된 예술 장르기 때문. 연극동아리를 인문학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극에서 인문학적 요소를 ‘썩썩’ 뽑아 동아리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고교생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맥베스’로 연극동아리 활동을 계획한다고 가정하자. 맥베스는 용감한 장군인 맥베스가 사악한 마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이 섬기는 왕을 살해한 뒤 왕위를 빼앗는 내용을 담은 작품. 작품 속 맥베스의 내면 갈등과 감정 변화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배경을 현대 서울로 바꾸어 재구성한 뒤 공연으로 올리는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간에 대해 어떤 고찰을 하였고 자신에게 어떤 밑거름이 됐는지도 동아리 활동기록지에 꼼꼼하게 기입해두어야 한다. 그래야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진로활동도 인문학과 접목하라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에도 인문학적 경험과 지식을 녹여낼 수 있다. 정형화된 활동으로는 자신의 인문학적 소양을 학생부에 녹여내기 어렵다. 하루 수백, 수천 건의 학생부를 보는 입학사정관의 눈에 띄면서도 인문학적 소양이 담긴 학생부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학급회의를 통해 반 친구들과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바꿔 읽는 제도를 만드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신선한 시도다. 자신이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을 고른 뒤 책 표지에 그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메모지로 붙여 제출하는 것. 이렇게 모인 책은 원하는 사람이 가져가 일주일 동안 읽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급의 단합을 도모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학생’이라는 평가가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신미경 서울 배화여고 3학년 담임교사는 “진로활동을 인문학적 체험과 연관짓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로봇공학자나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우리나라의 실학사상과 현대 과학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보면 좋다는 것. 신 교사는 “실제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반 학생들의 입시결과를 분석해보니 인문학적 활동을 한 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잘 풀어낸 학생들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mailto:monica89@donga.com)

## 확 바뀌는 학생부 기재 방식 총정리!



▲ 서산 서령고 학생부 기록 마감일 교무실 풍경 <사진 제공=서령고>

올해 6월 대구의 A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동료교사의 인증서를 도용해 NEIS에 들어간 뒤 학생 30명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몰래 고친 것이 발각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교사는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을 주로 고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광주 B고등학교에서도 상위권 대학에 학생을 많이 보내기 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 25명을 심화반으로 관리하며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해 문제가 불거졌다. B고교는 학교장의 지시 아래 학생부 수정 권한이 없는 특정 교사가 자신이 맡은 과목이 아닌 타 과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수정했고, 수학과 교사는 성적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고교의 학생부 조작 실태를 조사해온 안민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371개교에서 학생부 조작 및 오류 41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의뢰해 전체 고등학교(2,378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 시

스텝 전수조사와 학교 현장 방문조사(206개교)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권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업무 편의 등을 위해 관례적으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적정한 권한 부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학생부의 기록 측면에서도 그동안 소논문으로 대변되는 자율탐구활동은 대필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으며, 사교육의 주요 온상으로도 지목돼 왔다. 또한 일명 세특과 행특 기록은 '~우수함', '~탁월함'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경우가 많아, 대학에서는 이런 기록을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처럼 학생부 기록을 둘러싸고 기록의 신뢰도 및 공정성, 교사들의 역량 차이에 따른 기록의 차별성 등의 문제점이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들을 통해 빈번히 제기돼 왔다. 더구나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부가 학교생활의 온전한 종합기록으로서 공정하게 기록되고 신뢰를 얻는 것은 학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되고 있다.

거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등에 따른 학생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가 확대되면서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기록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학생부 기재 방식 논란... 교육부 메스 댔다

현장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의 학생부 기재와 권한 부여 등에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하며, 항목별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들은 특히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상황 항목의 기재 양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부모와 학생 및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별, 교사별 학생부 기재 수준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온전한 종합기록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가 되도록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재를 지양하고 활동 중심으로 학생의 의미 있는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면, 교사가 학생부를 보다 세세히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부 권한 관리 및 기재 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11월 23일 학생부 제도 개선을 위한 훈령 개정을 발표하고, 학생부 입력 주체가 모호한 항목은 입력 및 정정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학생부 기재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 가운데 창체 자율·봉사활동,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은 동아리 담당 교사가, 정정 처리는 발견한 학년도 담임교사가 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부 항목별 기재 내용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가 필요해진 학적 용어들도 정비에 나섰다. 명예졸업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항목을 신설해 나이스 시스템에서 기존 졸





업대장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 학생부 기재 방식 어떻게 바뀌나

개선된 학생부 기재 방식을 살펴보면, **진로희망사항**은 폭넓고 유연한 진로체험과 진로탐색 등을 위해 학생 중심의 ‘진로희망’과 ‘희망사유’를 입력하도록 했다.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이 다를 수 있는 ‘학부모 진로희망’란과 학생 성장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특기 또는 흥미’란을 삭제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었던 학생 활동 기록을 구체적 활동을 상시관찰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습 결과 중심 기록에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 과정 및 성취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자율탐구활동**은 교육과정 내에서 사교육의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과제 연구만 기재하도록 하고, 특히 연구과제명, 참가 인원, 연구 소요 시간만 기재하도록 강제했다.

**독서활동상황**은 교사의 관찰과 확인에 한계가 있는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이 우수함’이나 ‘~이 탁월함’ 같은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학생의 변화와 성장 등을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종합적으로 기록하도록 명시했다.

## ■ 개선된 학생부 기재 방식

항목	현행	표준 가이드라인
수상경력	교외상 입력 불가, 교내상은 상 명칭, 등급, 수상연월일, 참가대상(인원수)등 기재	학교별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을 기재, 수상 사실을 수상경력란에만 기재
진로희망사항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 구분 기재, 구체적 직업을 특기 또는 흥미란에 기재	진로희망은 학생의 진로설계 및 변경을 고려해 관심분야의 희망직업을 기재하고, 희망사유는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희망사유를 기재
창의적 체험활동	4개영역(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을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기재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변화의 성장 등을 기재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특)	학생의 과목별 특기사항과 방과후 활동 등을 기재	학습결과 중심 기록에서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과정 및 성취도 중심으로 기록, 방과후 학교활동 내용은 과목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
자율탐구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이나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 영역에 정해진 지침없이 입력	정규교육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된 연구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기재
자유학기제	시행학기의 4개 영역(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 기록	담당교사의 수시관찰에 의한 활동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과정 및 참여태도, 활동 후 성장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영역별로 기재
독서활동	과목 또는 영역별 학생의 독서성향과 읽은 책 및 저자를 기록	교사의 관찰·확인에 한계가 있는 독서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특)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포괄적 추상적 표현의 칭찬일색 중심으로 기록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관찰,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기록

## 학생부 나이스 시스템 개선 방향

한편, 학생부 나이스 시스템의 권한부여 절차도 강화했다. 학년 초 담임, 교과 담당, 동아리 담당 교사 등에게 부여되는 권한 외에 권한을 변경하거나 추가 부여할 경우, 학교장 결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관내 전체 학교의 나이스 학생부 권한의 최초 부여, 추가 부여, 권한 변경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권한인증 절차도 개선했는데 현행 나이스 인증을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인증 수준으로 강화하고, 「조회」와 「조회·입력」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연계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1차) 공인인증서 로그인 → (2차) 보안카드(ARS 또는 OTP) 인증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수정이력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학생부 내용 중 수정 내역의 누가 기록을 학년 학생부 마감 후 5년 동안 보관해 현장 지도·감독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 ■ 학생부 나이스 입력주체 변경 사항

항목	현행상 입력주체	
	현행	개정안
진로희망사항	없음	담임교사
창체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특기사항	없음	자율활동 및 봉사활동(담임교사) 동아리활동(지도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없음	교과 담당교사, 담임교사(방과후학교는 교과담당 또는 담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없음	담임교사

### ■ 학생부 나이스 권한 관련 변경 사항

권한부여 절차 강화	학년 초 부여되는 권한(담임, 교과 담당, 동아리 담당 등) 외 권한 변경 또는 추가 부여 시 학교장 결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보고
권한부여 모니터링	교육(지원)청이 관내 전체 학교의 나이스 학생부 권한의 최초 부여, 추가 부여, 권한 변경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권한인증 절차 개선	현행 나이스 인증을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인증 수준으로 강화하고 「조회」와 「조회·입력」으로 권한 부여와 연계
	인증 절차 개선: (1차) 공인인증서 로그인 → (2차) 보안카드(ARS 또는 OTP) 인증
수정이력 관리 강화	학생부 내용 중 수정 내역의 누가 기록을 학년 학생부 마감 후 5년 동안 보관하여 현장 지도·감독 등에 활용

교육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원주 상지여고 지창욱 교사는 “진로희망사항에 학부모 의견을 없앤 것은 잘한 일”이라며 “학생부 기록이 간소해져 과장될 수 있는 부분이 대폭 줄었으며, 대학이 학생부를 평가하는 데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 대정여고 변태우 교사는 “학생부담당교사나 진로교사 등 교장에게 권한을 부여받으면 아무나 NEIS에 접속할 수 있던 것이 큰 문제였다”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NEIS 권한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면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검훈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기록자 이외에는 수정할 수 없어야 하며, 관리자라고 해서 열람 권한을 다 주어서도 안 된다”며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학생부 수정은 대개 관리자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관리자에게 수정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독서활동 기재 간소화로 학종 장점 축소 우려

2017년 1월부터 실시되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에듀진>이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학생부 기재 방식의 변화 방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임교사 및 동아리 담당 교사 등의 역할과 책무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독서활동 상황에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실제 독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대학이 독서활동을 전공적합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활동에서 책 제목과 저자만 알 수 있게 되면 대학의 평가가 세특사항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독서활동이 교과서 단원과 학생의 진로 계획에 맞춰 이루어지면서, 독서로 비롯된 지적호기심이 다큐멘터리, 영화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선순환 작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이런 긍정적인 작용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한 반응은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NEIS 접근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추상적인 문제로 학생들의 특징을 잘 드러내지 못했던 기존의 학생부 기재 방식을 일신한 점은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기본으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긍정적 측면이 갈수록 축소·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도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학생들의 꿈과 끼, 잠재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학종의 장점은 사라지고, 학종이 '학생부 교과+@' 수준으로 변질돼 사실상 교과 성적 중심 전형인 학생부교과와 크게 다를 게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장기적인 발전적인 모델을 진로의 관점에서 제시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다.